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외쳤던 예레미야의 애가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용서와 화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무고하게 흘린 피가 오히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3:9-10	인도자
♠ 교 독 문	7. 시편 16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95.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다함께
성경봉독	I. 엡 6:10-20	다함께
	II. 신 8:1-4	이영란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우리들이 싸울 것	김재흥 목사
	II. 광야로 가자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46. 오 놀라운 구세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
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 섬기는 자가 되십
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얻는 행복보다 주님과 함께 겪는 고통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주님뿐이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27)	신명기 강해(7)
기도: 한상익 권사	기도 : 송양진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조관행 집사 윤정덕 장로	인도자 김용진 권사

6월	영접위원	윤정덕	김중수	권혁순	곽혜자	박애순	이영란
	헌금위원	이용한	방문성	김인걸	김필순	송양진	박혜경

뱀과 비둘기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져라. (마태10:16)

비둘기, 꽃, 나무, 그리고 대자연 전체가 열어 보이는 지혜를 관찰해 보라.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낼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지혜이다. 그 지혜는 우리의 의식이 다른 문제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이에 피를 순환시키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심장을 펌프질하고, 폐를 부풀게 하며, 우리 몸에 면역력을 주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한다. 대자연의 순리 같은 이런 진리를 우리는 이제 비로소 비둘기와 같이 순박하고 지혜로운, 이른바 원시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좀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서 지혜의 다른 종류인 두뇌의 정교함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가 대자연을 향상시킬 수 있고, 원시인이 알지 못했던 생명의 안전과 보호와 연장, 속도감과 안락함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해 가깝게 발달된 두뇌 덕분이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뱀의 머리와 같은 정교함을 잃지 않으면서 비둘기의 단순함과 지혜를 되찾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즉 당신이 대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대자연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정작 당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자연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은 당신의 오른손이 왼손과 싸우거나 당신의 오른발이 왼발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당신은 양쪽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창조적이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커녕 오히려 갈등에 사로잡히고 만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을 한번 보라.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자신을 개선하려고 대자연과 충돌하다가 간헐 버렸기 때문에 죽어 있고, 창조적이지 못하며,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당신은 대자연과 두뇌가 충돌할 때 대자연을 지지하라. 당신이 자연과 싸운다면, 자연은 결국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어떻게 이 조화를 이뤄낼 것인가?

첫째, 당신의 인생이나 성격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변화를 생각해 보라. 당신은 자신이 계획한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망을 불태움으로써 당신의 본성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비둘기와 싸우고 있는 뱀과 같다. 아니면 현 상황과 문제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동의해서, 당신의 자아가 바라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당신의 계획이 아닌 대자연의 계획에 따라 실체가 변화하도록 놔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뱀과 비둘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 이른 것이다. 잠시 당신이 처한 문제와 당신이 바라는 변화를 바라보고, 그것에 관해서 당신이 취하는 방식을 관찰해 보라. 사랑으로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 하고, 쉬지 않고 깨달음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처벌과 보상, 훈련과 통제, 설교와 죄의식, 탐욕과 자만심, 야망과 허영심을 이용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 보라.

둘째, 당신의 몸과 자연서식지에 있는 동물의 몸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 동물은 과다체중도 아니며, 싸우기 전이나 날아오르기 전이 아니면 결코 긴장하지 않는다. 몸에 해로운 것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한다. 자연력, 바람, 태양, 비 그리고 열기와 추위에 적당한 정도만 노출시킨다. 그것은 그 동물이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지혜에 따르는 것이다. 이를 당신 자신의 어리석은 잔피와 비교해 보라. 당신의 몸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탐욕, 야망, 허영심, 과시하고 싶고 남의 마음에 들고 싶은 욕구, 자아가 정해 놓은 대상을 쫓아가는 동안 육체의 목소리를 무시하도록 한 죄를 살펴 보라. 당신은 필시 비둘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셋째, 당신이 대자연, 나무, 땅, 풀, 하늘, 바람, 비, 태양, 꽃, 새, 동물과 얼마나 접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 보라. 얼마나 자주 대자연과 접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자연과 이야기하고, 관찰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관조하고, 동화되는가? 자연으로부터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들고, 기력이 없어지며, 연약해진다.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고립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대자연과 너무 오래 격리되어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시들고 죽는다. 그 뿌리가 뽑혀 버렸기 때문이다.

(안소니 드 멜로, 『사랑에 이르는 길』 중에서)

나방핼등

어떤 행동을 하게끔 기분이 일도록
피어 속이거나 부추기는 일을 ‘핼’이라 한다.
살살 피어 넘기는 짓을 ‘핼질’이라 부른다.
살다 보면 남의 피에 속아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다.
‘나방핼등’이란 빛을 보고 달려드는 성질이 있는
해충을 유인하여 죽이는 장치로,
북한에서는 그냥 ‘나비등’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흔하게 보게 되거니와,
푸르스름한 불빛을 보고 날것들이 날아왔다가는
‘치지직!’ 한순간 불에 타 떨어지곤 한다.
다른 우리말로는 ‘벌레핼등불’ 혹은 ‘핼등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부나비들,
그들에게 불빛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끄는 힘이 있길래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것일까?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사탄,
아이들은 사탄의 모습을 흉측하게 그려내지만
사실 사탄은 ‘사탕’이 아니던가.
환할수록,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 현란할수록
그것의 의미 혹은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창운 허정윤 김용진 박효선 박애순 노정숙 정완수 김재광 김혜권
이유선 방극숙 최인환 한인철 조윤숙 박재실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유증희 이재문 백묘현 문금석 최주환 문복순 김남중
오복순 김성자 김종문 지명주 이갑재 전영자 이은자 최성애 하현철

감사헌금:

김기석 김진경 송동준 오진훈 노순옥 전영자 김용진 박효선 김홍기
이한림 김명희 윤석철 장혜숙 김봉명 정동철

생일감사헌금:

이형석 이인섭 박현진

구도헌금:

김기석 김재흥 김철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오송경	하재두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박홍엽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이춘희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박경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진정숙	문금석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순복	김순복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이인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이순정	이순정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최종원	이명희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구성실	김진경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김시영	김시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안경숙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조항미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교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6월 정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신앙강좌** : 7월 두 번째 주일 오후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유미호 실장을 모시고 ‘생명 밥상 운동’에 대해 듣습니다.
3. **수련회 신청** : 8월 2일부터 5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섬, 평화의 시작’이고, 장소는 충주제일교회 수양관입니다. 휴가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함께함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 : 방학중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5. **봉사**: 7월 2일 애니아의 집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12시 30분)
6. **연합속회** : 7월 16일에 교회에서 모이고 속회 방학에 들어갑니다.
7. **신앙실천** :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평화는 이렇듯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씨앗을 심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헌화 - 구명자 권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